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20년 12월 29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인구 1,108만명 (2020 ^f)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3,539억 달러 (2020 ^f) 	1인당GDP 31,948달러 (2020 ^f) 	통화단위 UAE Dirham (Dh) 	환율(U\$기준) 3.67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 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s)으로 구성된 연합 군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란과는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 이후 산업 다각화 정책 등에 따른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석유 부문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저유가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UAE는 중동 산유국 중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었음에도 2019년 기준 석유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석유 생산에 의존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한계를 노출하여, 경제 다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방정부는 아부다비의 경제적 지원 아래 토후국 간 화합으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에도 이란과의 갈등 지속, 카타르와의 단교, 주변국(이라크·시리아·예멘)의 정치 불안정성 등으로 역내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5), 군사협력협정('07),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8), 문화협력협정('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0), 항공협정('10), 세관협력협정('15), 사증면제양해각서('16), 범죄인인도조약('17), 형사사법공조조약('17), 이중과세방지·탈세·회피예방협약('20)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5,388,883	4,588,472	3,469,772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자동차
수입	9,557,058	9,287,378	8,991,147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0.6월 말 누계, 총 투자기준) 473건, 2,630,681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1	2.4	1.2	1.7	-6.6
소비자물가상승률	1.6	2.0	3.1	-1.9	-1.5
재정수지/GDP	-2.8	-2.0	1.9	-0.8	-9.9

자료: IMF 및 EIU.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19년 이전 완만한 성장세 지속

- 2019년 기준 석유 부문이 UAE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국제유가 및 산유량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다각화 정책 등에 힘입어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경제 다변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짐.
-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 이후 산업 다각화 정책 등에 따른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석유 부문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연도별 GDP 규모 및 구성 현황

(단위: 억 디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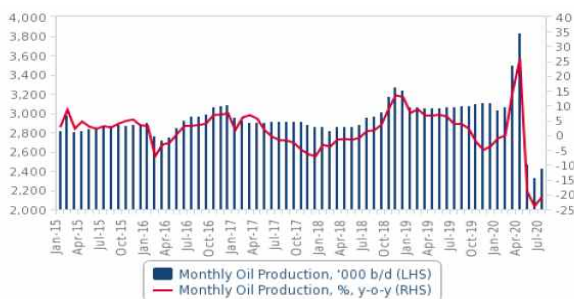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10,642	12,878	13,757	14,327	14,805	13,153	13,112	14,161	15,506	15,466
석유부문	3,310	5,014	5,373	5,288	5,051	2,870	2,531	2,900	4,029	3,870
비석유 부문	7,332	7,864	8,384	9,039	9,754	10,283	10,581	11,261	11,477	11,596

자료: UAE 연방통계청.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6.6% 수준의 역성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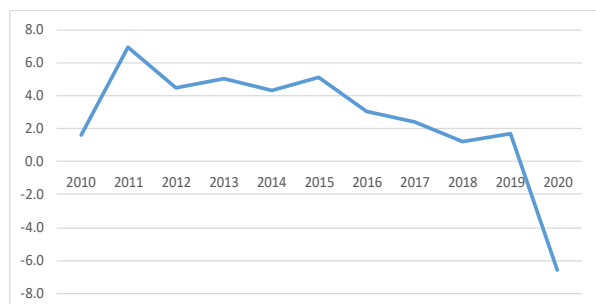
- 2020년 경제는 국제유가 약세 및 OPEC+ 감산 합의(산유량 감소)로 인한 석유 부문 위축과 함께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서비스업(관광업, 항공업, 운송업 등)의 영업활동 위축, 건설업·부동산업 부진, 민간소비 위축 등 전반부적인 경기부진으로 약 -6.6%의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10월 개최 예정이던 두바이 엑스포는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으며, 1975년 설립된 중동 최대 건설사 Arabtec(UAE 국부펀드가 40%의 지분 보유)는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유동성 악화 등으로 9월 30일 청산절차에 돌입하였음.

UAE의 월별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OPEC)

연도별 경제성장률(2010~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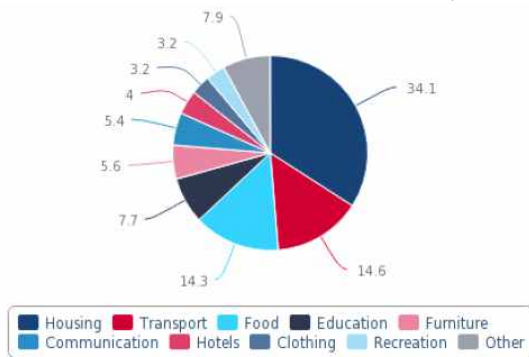
자료: IMF.

전년에 이어 2020년에도 디플레이션 지속 추정

- 최근의 경제성장 부진, 부동산 공급 과잉(아부다비, 두바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하락 등으로 2019년 소비자물가가 1.9%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도 국제유가 약세와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의 대거 유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1.5% 수준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21년 물가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및 낮은 이자율 등에 힘입어 약 1.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IMF).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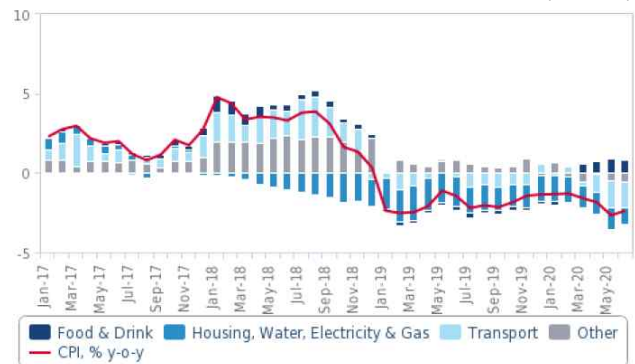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UAE 통계청(FCSA))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구성요소별 기여 현황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UAE 통계청(FCSA))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대폭 확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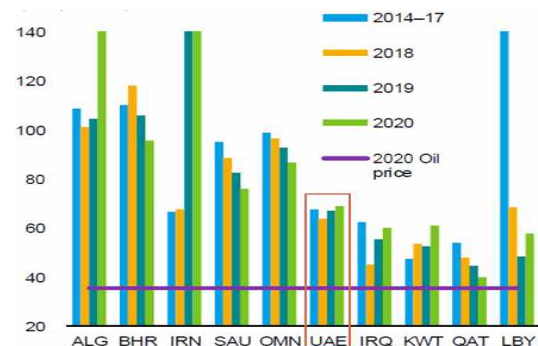
-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2019년 기준 UAE 재정수입의 41.2%를 차지하여 재정수지가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재정수지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락 및 이후의 저유가 기조로 적자 전환하였다가 2016년 11월 주요 생산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회복으로 GDP의 2%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2020년 재정수지는 유가 급락 및 이후의 약세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세금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전년(GDP의 -0.8%) 대비 크게 확대된 폭(GDP의 -9.9%)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됨. (2020년 균형재정 유가는 배럴당 69.1 달러 수준, IMF)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2010~19년, %)



자료: IMF.

국가별 균형재정 유가(달러/배럴)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상수지	13,199	27,465	40,478	29,643	-8,858
경상수지/GDP	3.7	7.1	9.6	7.0	-2.5
상품수지	55,105	67,193	85,652	74,762	47,665
상품수출	294,990	313,504	320,991	315,873	247,787
상품수입	239,886	246,311	235,339	241,111	200,122
외환보유액	84,383	94,354	98,412	106,381	91,048
총외채잔액	252,865	277,787	288,878	294,551	301,477
총외채잔액/GDP	70.8	72.0	68.4	70.0	85.2
D.S.R.	11.5	11.7	13.1	13.5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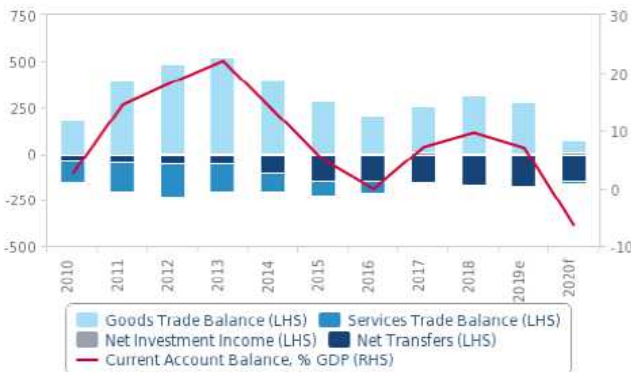
자료: IMF 및 EIU.

원유수출액 감소 및 관광업 위축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총수출액 대폭 감소 추정

- 석유 수출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에너지 국제수요 감소*, OPEC+ 감산 합의 이행, 저유가에 따른 원유·가스 수출액 감소와 함께 범국가적인 국경 봉쇄 및 두바이 EXPO 2020 연기에 따른 관광업·연관산업 위축 등으로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고 총수출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26.2%)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세계 원유수요(만 배럴/일): '17년 9,752 → '18년 9,898 → '19년 9,976 → '20년* 9,001 → '21년* 9,626 (자료: OPEC)

GDP 대비 연도별 경상수지 및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추이(%)



자료: EIU.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0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석유 수출 수입, 서비스 수입(관광, 항공 등) 등 주요 외화소득원의 감소로 인해 91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0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년(3.8개월분) 대비 소폭 증가(4.1개월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843.8('16) → 943.5('17) → 984.1('18) → 1,063.8('19) → 1,047.7('20.1Q) → 937.1('20.2Q) → 946.6('20.3Q) (자료: IMF)

- 한편, 연방정부(UAE) 및 토후국(아부다비·두바이)은 원유·가스 수출로 획득한 외화 등을 기반으로 조성한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국부펀드 규모는 2019년 기준 외환보유액의 11배 수준인 약 1조 1,616억 달러에 달함.

연방정부(UAE) 및 아부다비·두바이의 주요 국부펀드 자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세계순위*	국부펀드	소속 정부	총자산
3위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부다비 투자청)	아부다비	579,621
10위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두바이 투자공사)	두바이	305,233
13위	Mubadala Investment Company (무바달라)	아부다비	232,200
26위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에미리트 투자청)	연방정부	44,515

* 국부펀드 자산규모 기준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SWFI).

외채 관련 지표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

- UAE 및 토후국 정부는 재정·자본 구조의 다변화, 코로나19 확산 및 저유가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 대응 등의 이유로 2020년 중 외화채권(국채) 발행*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9년 70.0%에서 85.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 4월 아부다비 정부 70억 달러 채권 발행[5년물(20억 달러) 미국 국채 이율+220bps, 10년물(20억 달러) 미국 국채 이율+ 240bps, 30년물(30억 달러) 미국 국채 이율 + 271.1bps], △ 5월 아부다비 정부 30억 달러 채권 발행[5년물(10억 달러) 미국 국채 이율+135bps, 10년물(10억 달러) 미국 국채 이율+150bps, 30년물(10억 달러) 3.25%], △ 9월 아부다비 정부 50억 달러 채권 발행[3년물(20억 달러), 0.83%, 10년물(15억 달러), 1.732%, 50년물(15억 달러) 2.7%] 등

- 한편, 2020년 말 기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8.4%로 추정되어 전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석유수출액 감소 등에 따라 수출 관련 외채지표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

구조적취약성

석유 부문에의 경제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경제 다변화 노력 필요

- 정부의 산업다각화 노력으로 제조업, 관광, 금융, 건설 등 비석유 부문이 성장한 결과, 중동 산유국 중 경제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음에도 국내 인적자본 부족,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과도한 정부 고용비용, 취약한 제조업 기반 등의 한계로 석유 부문에 여전히 의존적인 상황이며,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GDP의 석유 부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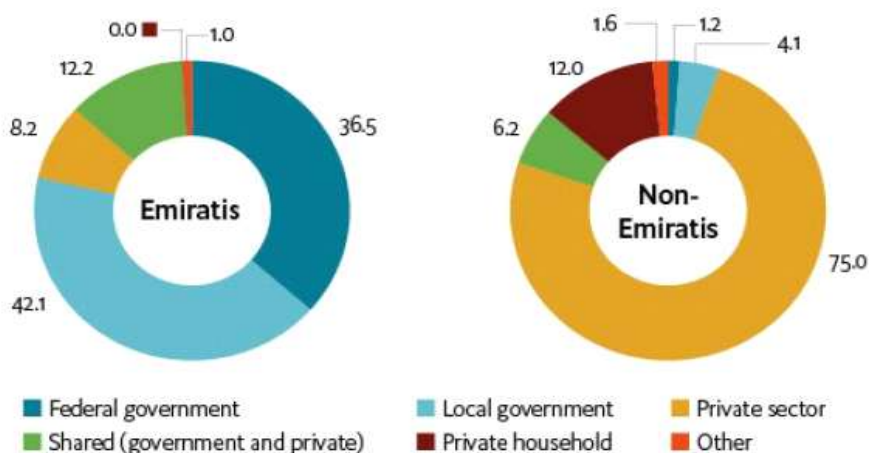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대비 비중	31.1%	38.9%	39.1%	36.9%	34.1%	21.8%	19.3%	20.5%	26.0%	25.0%

자료: UAE 연방통계청.

자국민의 민간 부문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필요

-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은 약 15%에 불과(EIU)¹⁾하여 대부분의 민간 경제활동을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가운데, UAE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 중임.
- 동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앞 자국민 고용 할당 의무화, 구직자 훈련 프로그램 지원, 고등기술대학 내 자국민을 위한 전문학위 과정 신설 등)을 시행 중이나, 민간 분야 종사자의 자국민 비중은 2015년 5.8%에서 2019년 3.6%로 오히려 축소됨.
-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및 저유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귀국은 장기적으로 자국민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투입(공급)으로 이어져, 민간 부문에서 자국민들의 비중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8년 UAE의 분야별 고용 현황(고용인구 대비 비중, %)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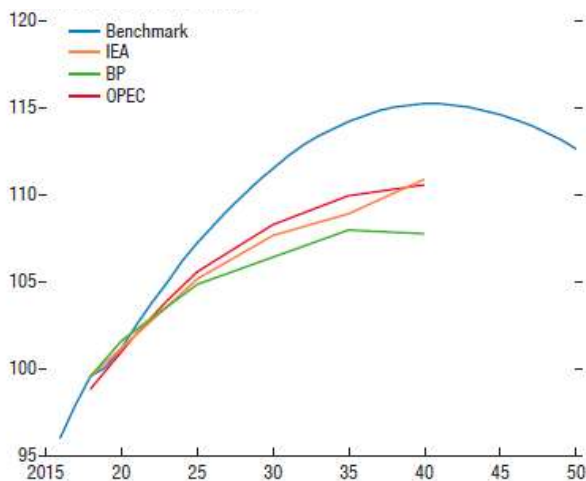
1) CIA THE WORLD FACTBOOK(2015년 추정치)에 따르면 UAE 인구는 자국민(에미리트인)은 11.6%, 남아시인 59.4%(인도인 38.2%, 방글라데시인 9.5%, 파키스탄인 9.4%, 기타 2.3%), 이집트인 10.2%, 필리핀인 6.1%, 기타 12.7%로 구성됨.

성장잠재력

에너지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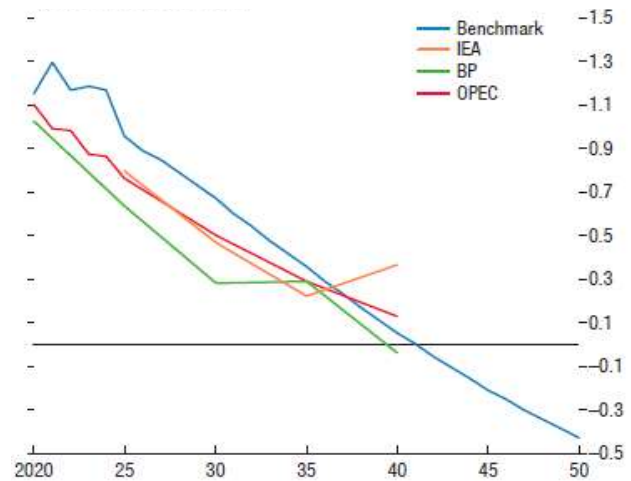
- UAE는 2019년 말 매장량 기준(BP)²⁾ 원유 978억 배럴(세계 점유율 5.6%, 8위), 천연가스 5.9조 m³(세계 점유율 3.0%, 9위)를 보유한 자원 부국임. 현재 밝혀진 매장량은 평균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원유는 67년, 천연가스는 95년 동안 생산 가능한 규모임.
- 한편, 일일 산유량은 2016년 생산량 감소 이후 완만히 회복*되어 2019년 399.8만 배럴(세계 점유율 4.2%, 6위)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OPEC+ 감산 합의 및 이행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 * 연도별 일일 산유량(만 배럴): 389.8('15) → 403.8('16) → 391.0('17) → 391.2('18) → 399.8('19) (자료: BP)
-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세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및 공급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증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이 예상되므로, 원유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에는 한계가 있음.
- IMF³⁾는 세계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소비, 기후변화에 따른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204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 석유 수요(백만 배럴/일)



자료: IMF.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 추정(%)



자료: IMF.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2020.6월

3) IMF, The Future of Oil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GCC Region, 2020.2월

정책성과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한 결과, 세계 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세계은행의 2020 기업여건순위**에서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 중 투자환경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141개국 중 순위: UAE 25위, 카타르 29위, 사우디아라비아 36위, 바레인 45위, 쿠웨이트 46위, 오만 53위

** 190개국 중 순위: UAE 16위, 바레인 43위, 사우디아라비아 62위, 오만 68위, 카타르 77위, 쿠웨이트 83위

-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UAE 상업회사법을 개정하여 일부 전략산업 분야(에너지, 방산 등)를 제외하고 전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한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외국인 고액 투자자(최소 1천만 디르함) 및 전문 기술인(의사, 엔지니어 등)에 대해 10년 장기 거주권(일명 골드 카드)을 발급하고 있음.

연방 정부 및 토후국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 육성

- 석유 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관광, 무역, 물류 등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연방 정부 및 토후국 정부 차원에서 성장 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이행하고 있으며 물적 인프라와 금융·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2008년 아부다비 정부는 △지속가능성, △다변화,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 융합되기 위한 경제개발 계획인 '경제 비전 2030'을 수립하였음.
- 정책 우선순위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토후국 전체의 번영⁴⁾이며, 7가지 주요 목표는 ①개방성·효율성·효과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기업환경 구축, ②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이행, ③탄력적인 통화·금융 시장 환경 구축, ④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 ⑤인프라 개발, ⑥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보유한 노동인구 육성, ⑦경제 분야와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 공급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금융시장 조성임.
- 한편, 경제 다변화를 위한 중점 육성 분야는 에너지(석유·가스),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방위, 제약·생명공학, 관광,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운송·무역·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로, 비석유 부문의 목표 성장률은 연 7.5% 이상임.
- 한편, 두바이는 지식 기반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2016년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수립하였으며, '두바이 산업전략'과 '두바이 플랜 2021'을 고려하여 항공, 해운, 알루미늄·금속 가공, 제약·의료기기, 식음료, 기계장비를 6대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음.

4) The Government of Abu Dhabi,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정치안정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정부 체제의 안정적 유지

- UAE의 정치체제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s)이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 각각의 왕정을 취하고 있음.
- UAE 원유매장량의 90% 이상을 보유한 아부다비의 경제적 지원 아래 토후국 간 화합으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UAE의 대통령직은 아부다비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2004년 11월)이, 부통령 겸 국무총리직은 두바이 군주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2006년 1월)이 수행하고 있음.

* 초대 UAE 대통령이자 친부인 Sheikh Zayed bin Sultan al-Nahyan 유고 이후 왕위 계승

- 아부다비 현 군주는 장기간 병세 약화로 실권은 이복동생인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자에게 있음. Mohammed 왕세자는 국방, 안보, 외교, 경제정책(에너지, 외국인투자) 등 국정운영 전반을 직접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 유고시 Mohammed 왕세자에게 왕위가 순탄히 계승되고,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도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발발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타 토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약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부다비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 체제는 향후에도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UAE 7개 토후국 지도



자료: www.worldatlas.com.

정치안정

왕족의 절대 집권 체제하에 정치적 불안정성은 낮은 상태

- 각 토후국 차원에서도 왕족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동시에 연방정부 부처의 요직도 왕족 출신들로 구성되어 왕족이 정치·행정·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한편, 정당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및 보조금 지원으로 민주화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아 정치적 불안정성이 낮은 상태임.

사회안정

거버넌스는 양호한 수준이나, 언론의 자유는 제한적

- UAE는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정치적 중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 등을 측정하는 정부의 효율성 부문*에서 2019년 기준 1.38**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는 180개국 중 21위를 차지(높을수록 투명)하는 등 중등 왕정 국가 중 거버넌스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19년 기준 UAE 1.38, 카타르 0.71, 사우디아라비아 0.31, 바레인 0.30, 오만 0.26, 쿠웨이트 0.02

** 최저 점수 = -2.5(나쁨) / 최고 점수 = 2.5(좋음)

*** 2019년 기준 180개국 중 순위: UAE 21위, 카타르 30위, 사우디아라비아 51위, 오만 56위, 바레인 77위, 쿠웨이트 85위

- 반면,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UAE는 2020년 기준 180개국 중 131위를 차지하는 등 언론 자유 수준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당국의 단속 아래 사회 안정 유지

- 국민들은 왕족 일가의 절대 집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 복지 제공으로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한편, 정부와 왕족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사회 안정성이 높은 편임.
- 그러나 7개 토후국 중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의 다른 토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토후국 간의 현저한 소득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여, 장기적으로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토후국에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위험은 낮은 편

- UAE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소수이며, 당국이 무슬림형제단 및 Al-Islah(현지의 이슬람주의 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검열을 시행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테러 위험은 낮음.

국제관계

아브라함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 2020년 8월 13일 UAE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에 이어 9월 1일 은행·금융 협정을 체결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었음. 이로써 향후 이스라엘의 우수한 항공·기술·금융 관련 협력 도모, 관광·투자 유치, 교역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기독교(미국), 유대교(이스라엘), 이슬람교(UAE)의 공통 선조인 Abraham의 이름을 따서 명명

반이란 정책 기조 아래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

- UAE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동맹국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등 반이란 정책 기조 아래 이슬람 시아파의 본산인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UAE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미국의 절대적 지원 약속 없이는 UAE가 이란 앞 군사적 공격 내지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음.
- 오히려 UAE 정부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군사 갈등을 피하고, 예멘 후티 반군(親이란)의 UAE 시설 공격 가능성 경감을 도모코자 2019년 7월 예멘 친정부군 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병력 일부를 철수하였으나, 이러한 관계개선 노력은 미국의 대 이란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이란 관계가 단계적(미국의 JCPOA⁵⁾ 복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일부 또는 전면 해제 등)으로 다소 개선될 수 있으나, 양국 내 정치 일정(이란 2021년 6월 대선 예정 등) 및 정치권 내 복잡한 역학구도 등의 변수가 존재함.

카타르 등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

- 걸프 지역 왕정국가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를 결성하며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무슬림 형제단(급진 이슬람 세력) 비호로 인한 갈등으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과 함께 카타르와 단교한 이후 현재까지 단교 상태를 지속 중임.
- 한편,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라크(2013~17년 내전), 시리아(2011년 이후 내전 중), 예멘(2014년 이후 내전 중)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주변국으로 인해 높은 상태임.

5)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일명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이란의 핵 개발 억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EU의 대이란의 포괄적 제재 해제(경제, 원유, 금융, 에너지 등 포함)를 주요 골자로 합의한 협정이며, 미국은 이란과의 재협상 결렬 이후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 미미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UAE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200.18억 달러(단기 33.98억 달러, 중장기 166.20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는 520만 달러로 연체율(0.03%)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주요 ECA들은 UAE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

-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UAE의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수 가능함.
- 단, UKEF의 경우 UAE 수출금융 지원대상은 아부다비이며, 두바이는 별도의 수출금융 지원국(단기, 중·장기 인수 가능)으로 관리하고 있음.
- HERMES의 경우, UAE 중앙정부 및 토후국별로 총 8개의 수출신용 정책을 관리 중이며, 아즈만을 제외하고는 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0.01)	2등급(2019.01)
Moody's	Aa2 (2020.09)	Aa2 (2020.06)
Fitch	AA- (2020.11)	-

Fitch, UAE 앞 최초로 정부채권 신용등급(AA-) 부여

- OECD는 2013년부터 UAE에 대해 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과거 아부다비(토후국)의 정부채권 신용등급만 평가하였으나, 2020년 11월 UAE 앞 최초로 장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음.
- Fitch는 연방정부의 낮은 정부채무 규모(2020년 기준 GDP의 34% 수준), 높은 순대외자산 규모, 높은 1인당 GDP 수준 등의 장점과 석유 부문에의 높은 경제의존도, 국영기업의 잠재적 우발채무 규모 등의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 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 또한 중동 지역 내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영기업들의 투명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낮은 정부채무 규모, 높은 1인당 GDP 수준, 원유·가스 매장량, 비석유 부문(무역, 관광, 운송) 성장세,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구조, 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Aa2 등급을 유지하였음.

- 2020년 UAE 경제는 에너지 수입수요 감소, OPEC+ 감산 합의 이행, 저유가에 따른 석유 부문의 부진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범국가적인 국경 봉쇄 및 두바이 EXPO 2020 연기에 따른 관광업 및 연관 산업 위축 등으로 -6.6%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하고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0.8%) 대비 큰 폭(-9.9%)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1.5%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UAE 연방정부는 연방 대통령직을 맡은 아부다비 군주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가 UAE 대통령직과 왕위를 순탄히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반면 이란과의 갈등 지속, 카타르와의 단교 상태 유지, 주변국(이라크·시리아·예멘)의 정치 불안정성 등으로 역내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음.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 시 외채상환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Fitch는 연방정부의 낮은 정부채무 규모, 높은 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20년 11월 최초로 UAE 앞 AA-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였음.